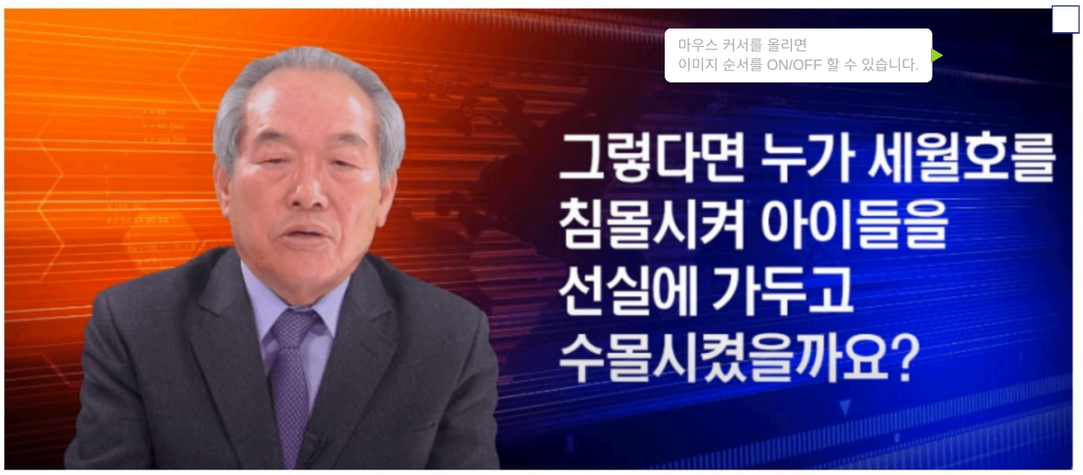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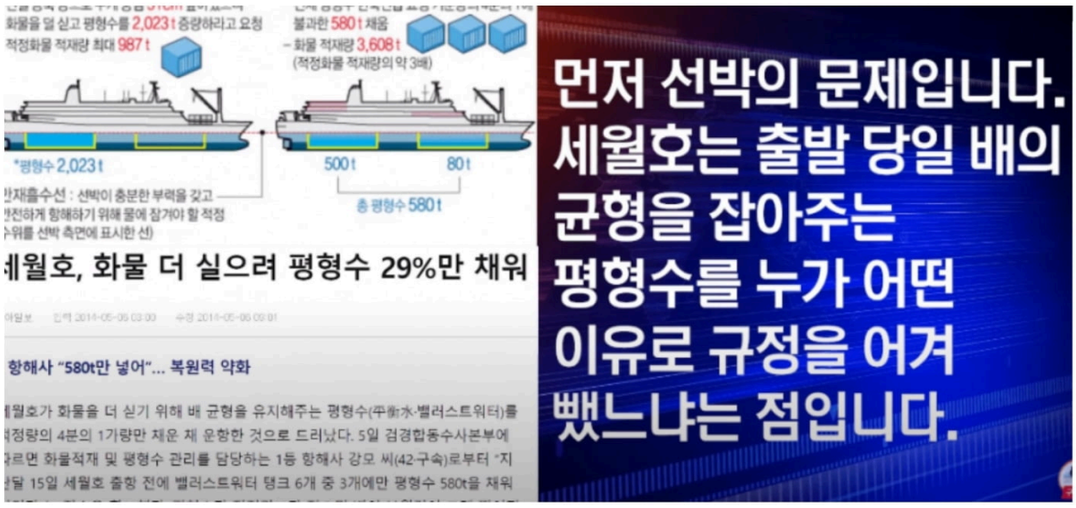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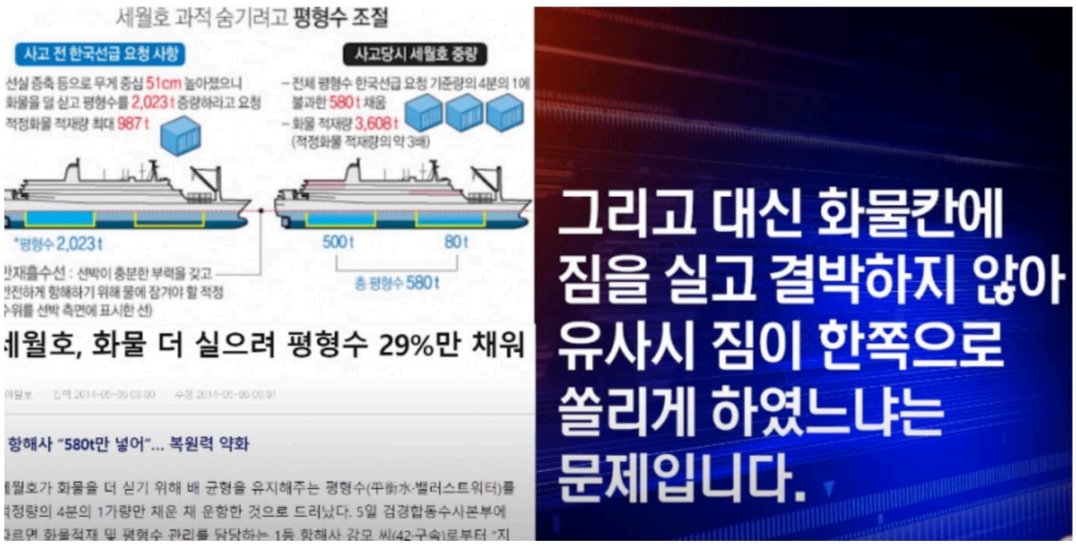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미지 순서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월호를
침몰시켜 아이들을
선실에 가두고
수몰시켰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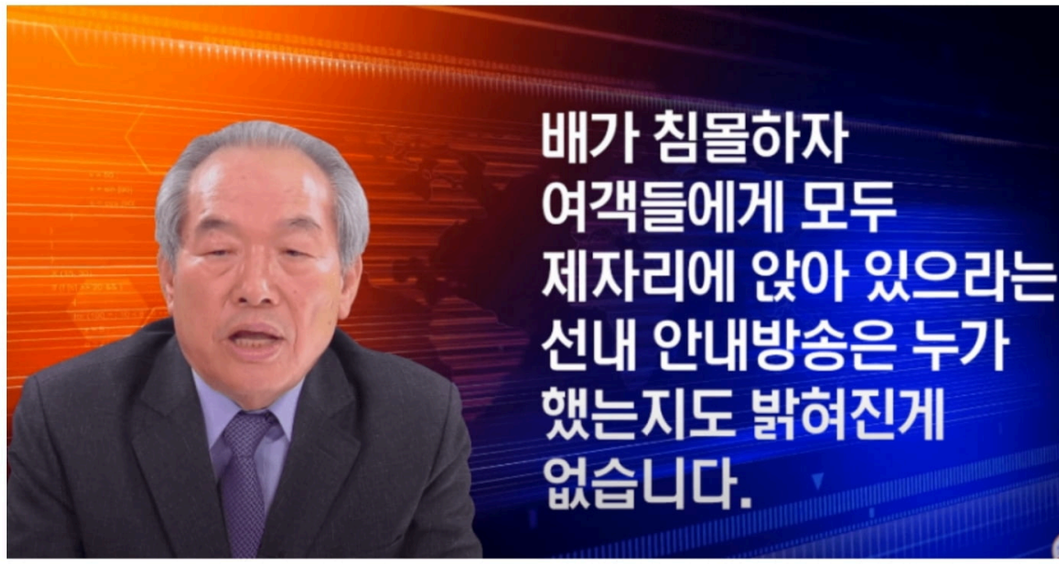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023t 증량하라고 요청
적정화물 적재량 최대 987t
불과한 580t 채움
- 화물 적재량 3,608t
(적정화물 적재량의 약 3배)
*평형수 2,023t
500t
80t
총 평형수 580t
세월호, 화물 더 실으려 평형수 29%만 채워
항해사 "580t만 넣어"... 복원력 약화
먼저 선박의 문제입니다.
세월호는 출발 당일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누가 어떤
이유로 규정을 어겨
뺐느냐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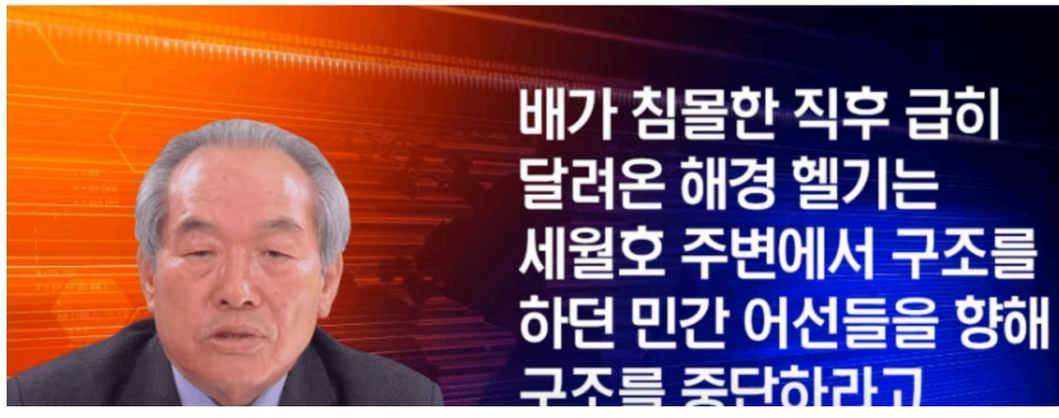

세월호 과적 숨기려고 평형수 조절
사고 전 한국선급 요청 사항
사고당시 세월호 중량
선실 증축 등으로 무게 중심 51cm 높아졌으니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를 2,023t 증량하라고 요청
적정화물 적재량 최대 987t
- 전체 평형수 한국선급 요청 기준량의 4분의 1에
불과한 580t 채움
- 화물 적재량 3,608t
(적정화물 적재량의 약 3배)
*평형수 2,023t
500t
80t
총 평형수 580t
세월호, 화물 더 실으려 평형수 29%만 채워
항해사 "580t만 넣어"... 복원력 약화
그리고 대신 화물칸에
짐을 실고 결박하지 않아
유사시 짐이 한쪽으로
쏠리게 하였느냐는
문제입니다.


왜 선원만 전원 구조되고,
그들을 구조한 해경은
그중에 한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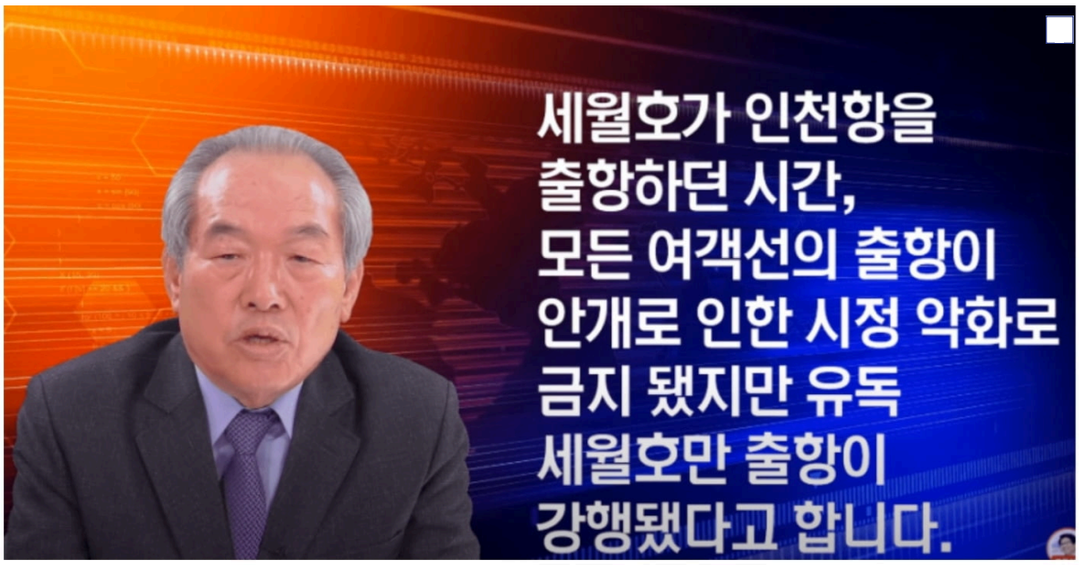

세월호 3등 항해사, 박한결
배의 조타 키를 잡은
사람은 그날 처음 승선한
한 번도 항해 경험이 없는
26살의 여성 3등
항해사였습니다.
1:19 / 9:18


세월호 3등 항해사, 박한결
3등 항해사는 배를
운항할 수 없도록 법이
금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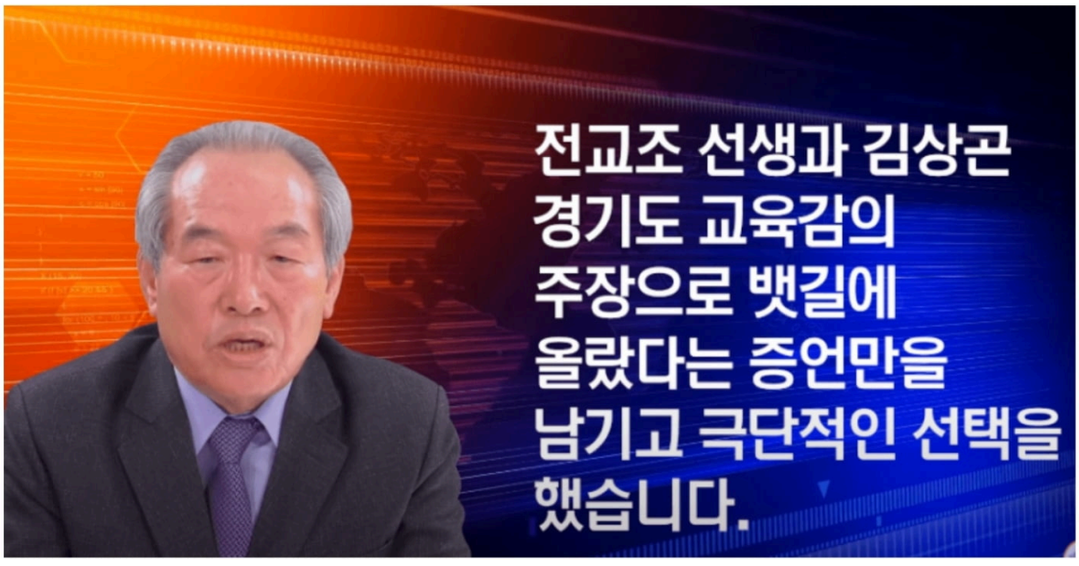

배가 침몰하자
여객들에게 모두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선내 안내방송은 누가
했는지도 밝혀진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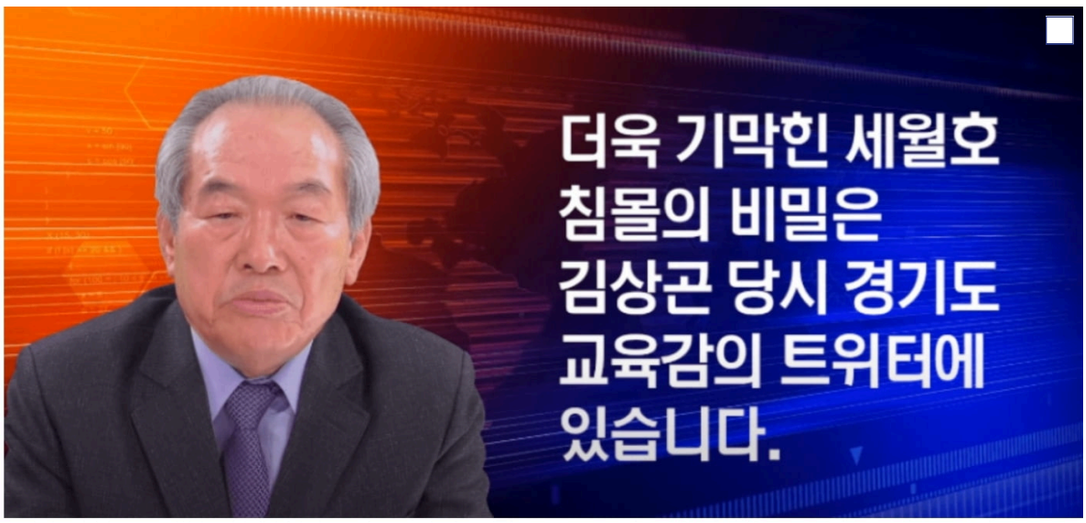

배가 침몰한 직후 급히
달려온 해경 헬기는
세월호 주변에서 구조를
하던 민간 어선들을 향해
구조를 중단하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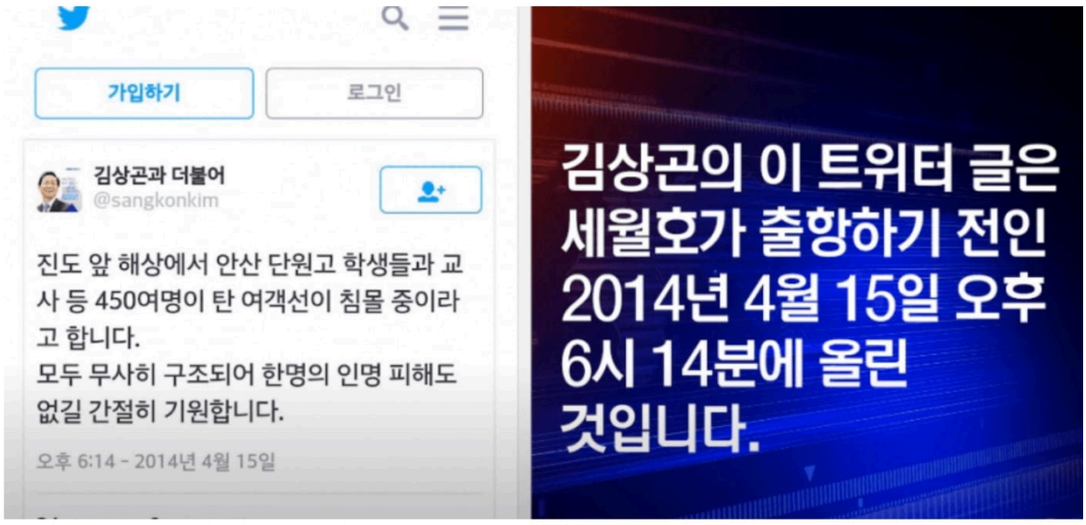

철수하라는 방송도
했습니다.


세월호가 인천항을
출항하던 시간,
모든 여객선의 출항이
안개로 인한 시정 악화로
금지 됐지만 유독
세월호만 출항이
강행됐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인솔 책임자로
승선을 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단원고 강민규
교감은 출항을
반대했지만


전교조 선생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주장으로 뱃길에
올랐다는 증언만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세월호
침몰의 비밀은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의 트위터에
있습니다.


가입하기
로그인
김상곤과 더불어
@sangkonkim
진도 앞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등 45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후 6:14 - 2014년 4월 15일
김상곤의 이 트위터 글은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인
2014년 4월 15일 오후
6시 14분에 올린
것입니다.


가입하기
로그인
김상곤과 더불어
@sangkonkim
진도 앞 해상에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등 450여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한명의 인명 피해도 없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후 6:14 - 2014년 4월 15일
김상곤은 이에 대해
오작동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인터넷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게 진실입니다.

세월호 사고발생 이틀 전에 '세월호 특별법' 간담회를 연 야당 국회의원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2017-05-04 09:36

가 + 가 -



김용익 전 의원 / photo by 사진출처=뉴시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살펴보던 중 특이한 기록을 발견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14년 4월 14일에 '세월호 특별법 논의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내역이 있었다. 지출 기록만 놓고 보면 해당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예견해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친구추가 TOP

다.

[계 정 명: 후원회 기부금]
[과 목 명: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Page: 10

연월일	내 역	수입액		지출액		잔 액	수입을 제공한 자 또는 지출을 받은 자					영수증 일련 번 호
		금 회	누 계	금 회	누 계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번 호)	주 소 (사무소소재지)	직업 (업종)	전화 번호	
2014/04/09	기초연금 간담회		77,804,693	309,000	19,691,890	58,112,803	전진 서어 의도점	107-18-6 353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런스오피스텔 101호	일반음식점	02-761-5 454	91
2014/04/11	강연 준비회의		77,804,693	44,000	19,735,890	58,068,803	코레일유통 (함정덕숙)	107-85-5 7147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3(당산동3가)	일반음식점	02-2630-8800	92
2014/04/11	지방복지재정 전문가 자문회의		77,804,693	80,000	19,815,890	57,988,803	갈비마을	209-09-8 1523	서울 성북구 정릉동 921	일반음식점	02-915-3 336	93
2014/04/14	세월호특별법 논의 간담회		77,804,693	76,000	19,891,890	57,912,803	남도마루	409-16-8 56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일반음식점	02-761-9 937	94
2014/04/16	조선비례대표의원 모임 회비 정산 반환금	328,320	78,133,013		19,891,890	58,241,123	민주통합당 비례대표조선의원모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65호	의원모임(겹기준의원실)	02-784-1 571	입-1
								7-85-4 999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	일반음식점	02-784-7 877	95
								4-86-3 9742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건물	신용카드	1588-160 0	96
								14-86-0 869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일반음식점	02-788-2 860	97
								20-01-8 8873	서울 중로구 원서동 136-3	일반음식점	02-747-3 000	

2014/04/14 세월호특별법 논의 간담회

세월호 발생 이틀전

50% 17:38

문재인님이 Facebook에서 기다립니다. 문재인님과 교류하려면 오늘 Facebook에 가입하세요.

가입

또는

로그인



문재인님이 **오유신**님 **외 3명**과 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오전 9: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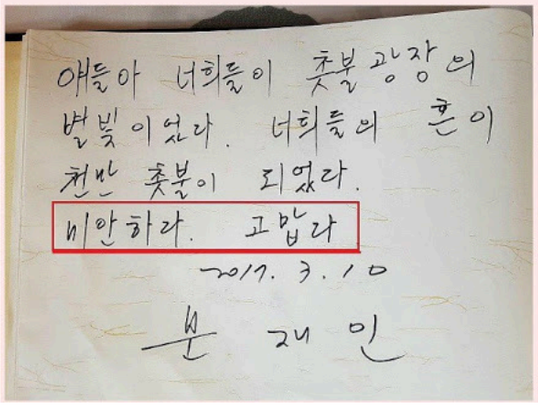
오늘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괭이부리마을은 인천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따뜻한 마을이었습니다. 송영길 시장이 그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몽땅 철거하여 원주민이 떠나는 재개발이 아니라 마을을 살리는 재개발을 했습니다. 일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중미 작가님은 '괭이부리말 아이들' 3권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지방정부 심판론'을 이야기 합니다. 맞습니다. 시민들께서 평가해야 합니다. 현직 단체장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시민은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 평가하고, 인천시민은 안상수 전 시장과 송영길 시장을 비교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빚을 진 시장이 누구인지? 줄인 시장은 누구인지 가려야 합니다. 또한 복지와 일자리를 만든 시장이 누구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불을 보듯 분명할 것입니다. 앞으로 4년 시장직을 맡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일 팽목항 간 문재인 전 대표
"애들아, 미안하다. 고맙다"

문 전 대표는 16시10분경 팽목항 도착, 분양소를 찾아 분양을 했다.
분양소 방명록에는 "애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을 남겼다.





세월호 사고날짜 4월 16일

4월 14일 사고 이틀전
문주당 싱크탱크 김용익 정치자금 내역에 세월호 간담회 지출내역 있음

4월 15일 사고 하루전
김상곤이 트위터에 세월호글 올림

게다가 같은날 문재앙은 인천에 감(세월호 출항지 인천)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앙

그리고 문재앙은 해양사고를 낸 세월호 해경기획관을 해양 경찰청장에 앉힘

4월15일은 제수이트들에게 아주 의미있는 날

링컨 암살, 세월호 (4월16일 한국시간이지만 서양4월15일), 타이타닉, 최근은 재작년 노틀담 화재 (two towers) 태양신에게 제사지내야 하는 날 중 하나. 북한의 태양절, 김일성 생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415총선

세월호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치밀하게 계획된 학살(인신 제사) 이다.

(1) 예정된 새 배에서 갑자기50년된 폐선 세월호로 갈아 태운 것
(2) 출항 11시간 전에 선장, 부선장, 교체하고,
(3) 출항 전 날 취업한 25살 무경험 항해사로 교체한 것
(4) 과적에, 배가 빨리 갈아 앉도록 **송 수신자 불명의 철근 360톤(성인 5,338명 무게) 을 실은 점**
(5) 정원의 초과 과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배가 뒤짚히지 않게 평형을 잡아 주는 평형수를 뺀 것

(6) 선장이 체크해야 하는 과적, 평형수 확인을 일개 직원이 체크한 점
(7) 기상 악화로 출항 예정된 9척의 배를 출항 금지시키고 세월호만 출항시킨 점
(8) 교육부에서 두배로 나눠 태우라는 지시를 교육감이 무시하고 (전원 다 죽일려고) 한 배에 태워
(9) 출항 날자인 4월 16일은 서양력으로는 4월15일,
이 날은 태양신 종교 니무릇의 아내 세미라미스의 생일에 죽은 아들 호루스의 부활을 위해 드리던 인신제사의 날,
이 의식은 유다와 이스라엘 시대를 거쳐 지금도 프리메이슨의 보헤미안 그로브(캘리포니아)에서는 해 마다 영아 인신제사를 드린다.
(10) 4월16일은 서양에서는 4원 15일, 타이타닉과 고야 호가 침몰한 날,
김일성 태양신의 생일, 세월호 사건은 김일성 태양신의 부활과 영생을 기원하는 인신제사 였다.

(11) 항해사가 항로를 고의로 이탈하여
해류가 위험하기로 소문 난 <뱅골수>로 진입해서 갑자기 급회전을 지시한 점.
(서울대 김영환 교수팀은 급회전이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원인 이라고 밝혔다)
(12) 침몰 지점이 기가 막히게 일루미나티 숫자들인 위도 33.36667 즉 일루미나티가 중요시하는 33, 3에다 666+6,
그리고 그들이 중요시하는 완전 수 7로 끝나는 지점에서 급회전시켜 고의로 침몰하게 한 점
(13) 세월호 희생자 304명은 300인위원회 숫자(300)에 근접, (같은 인신제사였던 서해 페리호 희생자도 이에 유사한 292명)
크라이슬러의 세단 300C 모델은 그 이윤을 300인위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만든 차다.
(14) 지난 항가리 유람선 희생자 30명도 같은 인신제사로 볼 수 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숫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사용한다.
(15) 관제 센타에서 "선장이 알아서 인명 탈출시키라" 라는 지시도 무시한 채 자기들 계획대로 진행.

(16) 배가 뒤짚혔을 때, 선장은 객실에 구명 조끼를 입으란 말도 않고 "꼼짝 말고 거기 가만 있으라" 고만 방송했을뿐 아니라,
출입문을 잠궈서 봉쇠하고 퇴선했다.
(17)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도 승객들에게 "대기하라" 라고 방송한 후에
기관사가 매스터 키로 모든 출입 문을 잠그고 나와서 많은 희생자를 내게 하고 방화 증거 인멸 위해 물청소까지 했다.
(18) 해방 직후인1954년8월24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수송하던 일본 수송선(우끼시마 호)에서 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선실 안으로 집어넣고 선실 문을 잠그고 일본인들만 미리 탈출하고 폭파, 침몰시켰다. (이 모두가 꼭 같은 고의적 학살이다)

(19) 방송실 옆에 해경이 있었는데도 구조를 위한 어떤 방송도 하지 않았고 그냥 배를 버리고 내려갔다.
(20) 배가 전복됐을 때, 해경 헬리콥터 두 대가 계속 돌면서
구조하러 온 미국 헬기와 일본의 구조함과 해군 함정에게 접근을 불허하고 철수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구조하려 온 100여 척의 민간 어선에게도 접근을 못하게 했고,
잠수사들과 구조하려고 배에 오늘 어부들에게 내려 오라고 호통치며 끌어 내렸다.

(21) 배가 전복됐을 때 청와대에 338명 전원 구조했다고 허위보고하고 언론들도 일제히 전원 구조 방송을 했다.
(22) 그러는 동안에 해경은 배에 물이 들어가서 빨리 침몰하도록 세월호에 로프를 걸고 세월호를 이리 저리 끌고 다녔다.
(23)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사진을 보내라고 하니까 비밀이라고 못 보낸다고 거절, 현장 지휘관을 바꾸라고 하니까 회의중 이라고 거절.
(24) 생존자의 말, 갑판에서 캔 맥주를 마시며 한가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는 기관사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디서 나왔느냐고 하니까 기관실에서 나왔다고 해서 경악, 위에 있는 아이들도 못 나왔는데 배 밑창에 있는 기돤사가 어떻게 나와?
(25) 사실을 은폐하려고 선장의 지시로 해경이 블랙 박스를 가지고 퇴선, 특검도 블랙박스를 밝히지 않고 있다.

(26) 위에 있던 학생과 승객이 배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못 들은척, 생존자들이 배 안에 사람이 많다고 구조해 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해경은 못들은 척
(27) 선장은 지금 우리가 탈출하면 구조해 줄 수있느냐 라고 하며 기관실 선원까지 챙겨서 선장이 맨 먼저 탈출
(28) 선장이 탈출하자 해경이 선장을 태우고 해경 간부 집에 데려다 숨겨
(29) 언론은 일색으로 해경과 입을 맞춰 허위 보도만 했고.
(30) 문재인이 죽은 학생들에게 얘들아, 고맙고 미안하다 라고 한 것은,
대통령이 사전에 다 알고 저지른 사건일 뿐 아니라,
박은혜를 탄핵하고 자기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다.

(31) 세월호 수사는 당연히 선장부터 부선장, 항해사 순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지 않고 단원고 교감을 불러 조사했고, 그에게 뒤집어 씌울려고 얼마나 공갈 위협했는지 교감이 자살까지 하게 했다.
(32) 선원들만 탈출한 **세월호 인신제사의 교리 – 구원파 유병헌의 아지트 금수원(구원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을 짐승들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따른 것
(33) 세월호의 회사명 세모그룹의 세모는 삼각형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루미나티의 상징 피라밋을 모방한 것
(34) 오대양 그룹의 로고는 일루미나티 로고를 그대로 빼 닮았고, 그 삼각형 로고 안에는 전시안이 있다. 그것은 미화 $1 뒷면에 있는 일루미나티 상징인 피라밑 꼭기의 삼각형과 전시안을 그대로 모방한 것.
(35) 유병헌의 회사 세모그룹이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이 유병헌의 세모그룹의 빚 3,000억을 탕감해 주어서 세모 그룹이 다시 일어나게 해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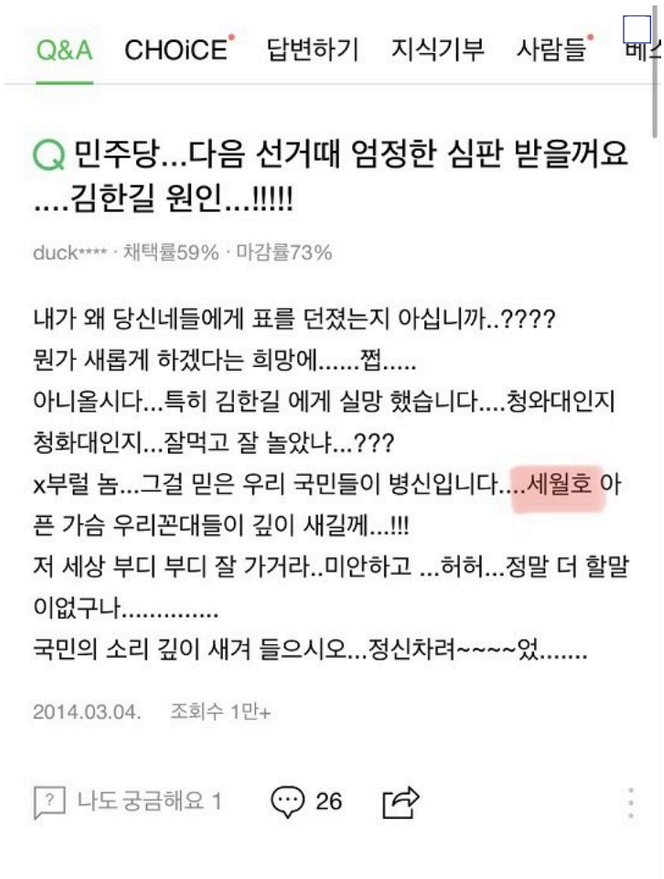
(36) 고 노무현의 묘지는 미화 $1 뒷면의 피라밑과 꼭대기 삼각형과 전시안을 그대로 닮났는데,
그 묘지는 노무현 사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었던 문재인이 했을 것이고,
따라서 노무현 = 문재인 = 유병헌과 세모 그룹 = 일루미나티= 세월호사건은 불가분의 관계다
(37) 세월호 로고는 오털트에 심취되었던 나치의 SS 홀 바닥에 있는 로고를 닮았다.
(38) 유병헌의 아지트 금수원은 황금빛 수를 놓은 아름다운 비단 (錦繡) 이란 뜻인데, 이를 뒤집으면 짐승(禽獸)이 된다.
사탄과 비밀결사인 일루미나티는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뒤집어야 그 실체가 들어난다.
금수원 이란 말은 안국선의 소설 "금수 회의록" 에서 따 온 것 같고, 구원파가 아닌 사람들은 다 금수(짐승) 이고,
짐승인 그 애들은 다 죽어야 하고 구원파 사람(선장과 선원들)만 구원 받으면 된다는 것을 위미한다.
(39) 결국 결론은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된
남북 빨갱이들(전교조, 해경, 유병헌)을 통한 일루미나티의 공작이고,
동시에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태양신 김일성의 영생 부활을 기리는종북 세력의 충성을 고백하는 "거룩한 인신제사 의식" 이라는 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월호 조사 위원회 로고 - 전시안

선장이 아이들보고 움직이지말고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함...

마치 일부러 제물로 바치려는 듯이



야권 통합신당이 기초선거 공천 안 하면
선거기호 1번은 새눌당, 2번은 없어지고,3번이 통진당이 된다.

이 경우 만약 야당지지가 강세인 지역에서 통진당이 의외로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통진당은 "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당을 지지하는데 무슨 정당해산이냐."라고 할 구실을 얻는다.

통합 신당은 결과적으로 종북좌빨 통진당을 기사회생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이번선거 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65874

출처 수컷닷컴

2014.03.07.

6 ••• 1 Beta 포인트로 감사

csi3****님 답변

파워 · 태양신 · 채택답변수 7,697 · 받은감사수 1

질문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식iN에 등록한 질문 내용의 수정은 질문의 답변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이 등록한 질문에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는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없이 질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답변이 1건 이상 달린
경우는 질문 내용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달린 경우 질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질문자가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이미 달린 답변 내용까지도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되서 답변 활동을 하신 분들께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2008.02.01.

표정 댓글 Beta 포인트로 감사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402&docId=192677671&qb=7IS47JuU7Zi4&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mobile

14년 3월 7일에 바로 답변 달려서 질문이 수정 불가능했음(세월호 2014년 4월 16일)

'노란 리본' 단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희생자들 성모님께 의탁한다"

[현장] 교황 방한 둘째날... 전국 신자들 대전서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14.08.15 12:12 | 최종 업데이트 14.08.15 21:20 | 유성애(findhope)

좋아요 4.1천개 | +크게 | -작게 | 인쇄 | URL줄이기 | 스크랩 | 4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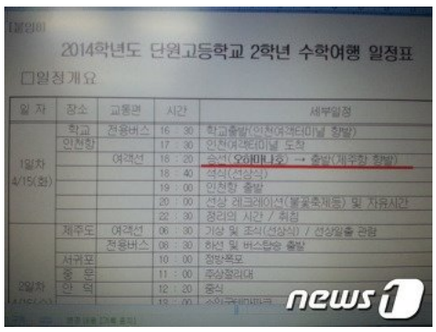
원고료로 응원하기 15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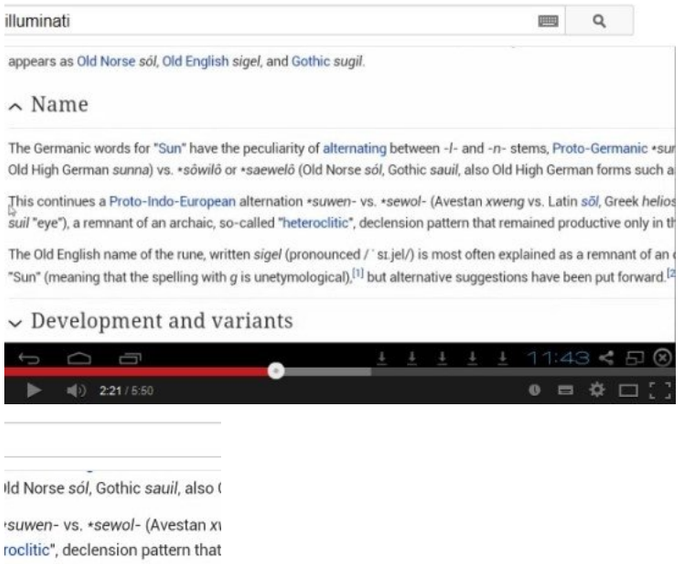


세월호 리본 문양 = 프리메이슨 뱃지 모양

문재앙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하여 제물로 바친거다 라는 말이 있음



원래 단원고 고등학생 들이 탔어야 했던 배는 세월호가 아닌 오하마나 여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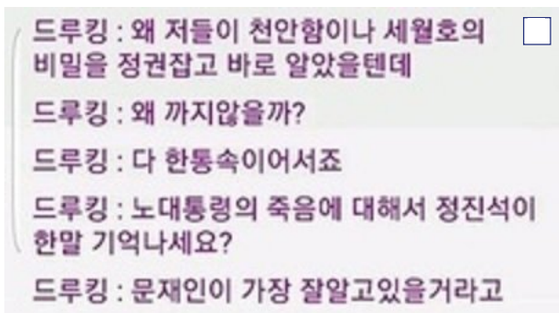
영어 스펠링 sewol 은 나치와 사탄숭배자들이 이용하는 심볼중에 하나인 Black Sun
https://en.wikipedia.org/wiki/Black_Sun_(symbol)

Video player configuration error

Error 153

Watch video on YouTube Learn more

https://youtu.be/h6XwEJwNw0U



척추 관절치료에는 새움병원
새움병원, 디스크, 척추, 관절, 족부, 수부, 내과 진료, 금천구 독산동 위치.
http://www.saeumhospital.kr
바로가기

전체 댓글 3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ㅇㅇ	https://www.sundaysisa.com/sisanew/bbs/board.php?bo_table=Asdfjk_68Ads&wr_id=6710&sst=wr_hit&sod=desc&sop=and&page 기사
ㅇㅇ(220.126)	아니뭐 노회찬을 죽일이유는 없잖아;?
ㅇㅇ(58.235)	대단하다 민주당 저 사건 이후로 정부가 마비되었지

그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1

그갤러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글자콘

전체글 개념글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이혼이나 과거 연애 이야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스타는?**	운영자	26/11/02	-	-
AD	**프리미엄 홈카페 드롱기의 특별 선물!**	운영자	26/03/05	-	-
공지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 이용 안내** [145]	운영자	15.12.11	300801	190
1101466	남편이 범인 맞음.	ㅇㅇ (1.249)	13:25	5	0
1101464	아동학대하는 태권도관장 몇번째인지 모르겠네	ㅇㅇ (223.38)	12:39	34	2
1101463	여기 짱개들이 갈라치기 하는 증거 [1]	ㅇㅇ (106.101)	11:27	31	4
1101462	통영) 2부 업뎃했다	ㅇㅇ	09:01	88	6
1101461	저번주 그알편 여자도 남자도 외모가	ㅇㅇ (223.38)	00:41	125	1
1101460	요즘 한국 여자들 왜 이렇게 이쁨? [4]	ㅇㅇ (117.111)	00:32	182	2
1101459	적당히 먹어 성인병 올라	그갤러 (106.101)	00:15	88	0
1101458	여기 남녀비율어케되냐 투표해봐 [2]	ㅇㅇ	11.05	106	0
1101457	한국에서..	경기 (217.119)	11.05	53	0
1101456	요즘은 통영 코난짓 안하냐?	ㅇㅇ (211.36)	11.05	51	0
1101455	제육을 짐승처럼 처먹네 [2]	ㅇㅇ (223.38)	11.05	190	2
1101454	가장 최악이 허리 존나 두껍고 배 존나 나왔는데 가슴 aaa컵인년임	ㅇㅇ (106.101)	11.05	90	3
1101453	여기 갤 오는 키150초반 몸무게 8-90이상인 한녀들에게 해당사항…	ㅇㅇ (106.101)	11.05	47	0
1101452	남자들 맨날 야동보고 자위하는 것들 [3]	ㅇㅇ	11.05	156	2
1101451	한녀들 지하철 좁은 골목 인도 위에서 핸드폰만 쳐보면서 걸어오는거 [2]	ㅇㅇ (106.101)	11.05	81	3
1101450	휴가 나온 군인들 밥 왜 사주는거야? [3]	ㅇㅇ (223.38)	11.05	178	3
1101449	60대 한남 폐암4기에도 전여친 못잃어 스토킹 살해 [1]	ㅇㅇ (223.38)	11.05	150	16
1101447	인도네시아 실종....ㄷㄷㄷㄷ [4]	김섹수대리님 (183.103)	11.05	400	7
1101446	여자들한테 이러는 새끼 심리 뭐야? [1]	ㅇㅇ (14.41)	11.05	119	0
1101444	대구 허양 살해사건	그갤러 (61.84)	11.05	120	0
1101443	통고제도 정당화하는 보육원장 쫌 어이없네	ㅇㅇ (223.38)	11.05	67	0
1101441	팔레스타인 시위는 솔직히 개뇌절아님	그갤러 (223.38)	11.05	55	3
1101440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달려 들어서 빗자루 뺏는거 보소 [3]	그갤러 (175.211)	11.05	111	1
1101439	참 희한한게 전*조랑 남**같은 사람 많네 [1]	ㅇㅇ (39.117)	11.05	91	0
1101437	널 한번도 여자로 생각해 본적이 없어	그갤러 (175.211)	11.05	125	1
1101436	한남 한녀 이지랄해도 짱깨에 비하면 양반임 ㅋ	ㅇㅇ (106.101)	11.05	65	4
1101434	산책로 방향으로 노상방뇨 싸대는 한남 [1]	ㅇㅇ (223.38)	11.05	94	4
1101431	여기 붙박이 애들이 젤 불쌍하지 [3]	그갤러 (59.23)	11.05	112	3
1101428	장모살인범 존나 양아치같이 생겼누	ㅇㅇ (211.235)	11.05	86	4
1101424	통영) 유튭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 2부 PART I 올렸다 [1]	ㅇㅇ	11.05	152	0
1101423	뚜리국 욕할게 아니라니까 [1]	그갤러 (221.144)	11.05	255	4
1101421	미친년들 댓삭 오지게 하노 ㅋㅋ [3]	그갤러 (221.144)	11.05	141	2
1101417	찐따남은 반드시 피해를준다	그갤러 (112.153)	11.05	69	6
1101403	솔직히 한국 여자들 존나 이쁘고 좋지않냐 [4]	ㅇㅇ (117.111)	11.05	249	1
1101399	여자 보고 군대 가라는 인간도 너무 싫어 [19]	ㅇㅇ	11.04	528	22
1101397	짱깨선동 싹다 거르고 ㄹㅇ 여자 안낳는게 이득일듯	그갤러 (183.101)	11.04	67	2
1101394	왜 갑자기 화교년들 들어와서 갈라치기 함? [6]	ㅇㅇ (106.101)	11.04	128	8
1101389	반려동물 사육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소음·환경 공해 관리 및 제도…	그갤러 (119.204)	11.04	63	0
1101387	인생덧있다	인생덧있다58.1…	11.04	145	0
1101386	부산 서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경찰 수준 [1]	그갤러 (106.101)	11.04	299	14

로그인해
즐겨
오늘
초역세권
오남
실시간 베
마왕군 사천
뷰어 2부 88
인생 망했다
싱글벙글 발
젤다 시오 언
asdf 왜까이
이스라엘군대
디시미디어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1101385	부산 배산 여대생 살해 미제사건 이거 2017즘 방영분	그갤러 (61.99)	11.04	158	3
1101384	[속보] "나를 신고해?" 전남친 성폭... [2]	그갤러 (221.144)	11.04	359	3
1101383	근데 알아서 티내고 그러면 고맙긴 함	그갤러 (106.101)	11.04	90	1
1101382	배타성 가장 심한 집단이 여초임	그갤러 (106.101)	11.04	213	15
1101381	이제 한녀들 맞는건 동정심이 안들더라 [8]	ㅇㅇ	11.04	498	14
1101380	키작남 찐따 찌질이	그갤러 (221.144)	11.04	176	1
1101379	만만한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한다는 게 진짜 악질임 [2]	ㅇㅇ	11.04	138	9
1101378	통영) 유튭 1편 업데이트 했다 [1]	ㅇㅇ	11.04	229	5
1101377	국(나라)만드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제정신 아님 [2]	그갤러 (118.235)	11.04	151	2

식당 박살 나
대 만취남

[포커스] 中
서인영 "축기
"치킨보다도

개념글[힙합

여자는 30
내가 유일
근데 지금
윙줌거르
릴낙태. 나
나이키=다

전체글 개념글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페이지 이동

제목+내용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승리의 여신 니케
메이플스토리
로스트아크
FC 온라인
아이돌마스터
사운드 볼텍스
던전앤파이터
배틀그라운드
칸코레

연예/방송
남자 연예인
방탄소년단
아이유
윤하
태연
기타 국내 드라마
걸스플래닛999
나는 솔로
미스터 트롯
기타 미국드라마

스포츠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해외야구
해외축구
롯데 자이언츠
국내야구
한화 이글스
kt 위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

교육/금융/IT
대출
주식
비트코인
아이폰
컴퓨터 본체
자격증
학점은행제
토익
정치, 사회
의학

여행/음식/생물
도시
여행-동남아
편의점
치킨
기타음식
맥도날드
파충류, 양서류
식물
야옹이
멍멍이

Copyright ⓒ 1999 - 2026 dcinside. All rights reserved.